## 의정칼럼

# 국민과 함께 빠르게 바뀌어갈 '진짜 대한민국'

정 다 은
광주시의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2주가 지나고 있다.

2024년 12월3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계엄 선포와 함께 시작된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 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매주 광장에 나섰다. 장소가 민주광장이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이냐 차이만 있었을 뿐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열망으로 가득찬 국민은 광장을 가득메웠다.

2016년 박근혜 파면 때 광장을 '촛불'이 뒤덮었다면 2024년 광장의 주인공은 '응원봉'이었다. 저마다 응원봉을 손에 쥔 국민들은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외쳤고, 함께 어울렸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윤석열이 파면되는 과정의 수많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기 위한 숙제로 남았다.

계엄을 주도한 인물들은 법정에서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급급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을 체포하는데도 많은 난관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구속된 윤석열이 느슨한 법망을 이용해 석방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했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국민은 이대로 가다가는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다며 '내란성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2025년 4월4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은 60일에 걸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속에 빠져들었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섰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후보가 아닌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국민이 내리는 심판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있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들께 '가슴속에 품은 분노가 투표로 이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외치고 또 외쳤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 공개된 투표율을 보며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국민이 만든 나라라고 느끼게 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다음날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선거결과를 두고 '위대한 국민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궐위로 인한 선거'이다. 재보궐선거와 달리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취임과 동시에 5년의 임기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2주가 지나고 있다.

필자는 정치에 입문한지 채 4년이 되지 않았지만 정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는 국민에게 '효능감'으로 다가오고, 이 효능감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취임 2주째인 이재명 대통령의 앞에는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부당한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난 3년 동안 망가진 경제와 외교도 복원해야 한다. 악화될대로 악화된 남북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생도 살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이뤄내서 국민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뛰어넘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과 같이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시대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 된 2025년 6월4일 새벽 국회의사당 인근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도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수식어가 붙는 광주광역시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시민들이 기대하고 맡긴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로 국민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정치라는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 기 고

# 전남 교육의 미래를 위한 포용과 성장

최 은 순
순천신흥초등학교 교장

전라남도 교육은 '포용과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왔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체감된 정책들 가운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들 위주로 찾아보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다. '전남형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는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학교들을 지역 특색을 살린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해남의 한 작은 초등학교는 마을 어르신과 함께하는 갯벌 체험 수업, 공동 텃밭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과 공동체를 함께 배우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도시로 전학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며 학교에 대한 만족을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생태환경 교육 강화다. 순천의 한 중학교는 '순천만습지'를 학습장 삼아 생태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발표하며, '우리 동네 기후 회복 계획서'를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까지 수행했다. 어떤 학생은 "처음엔 숙제 같았는데, 지금은 환경을 지키는 게 내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셋째는 전남형 직업계고 혁신이다. 목포의 C공업고등학교는 조선·기계 특성화 교육과 조선소 현장 실습을 연계해, 졸업생 상당수가 지역 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3학년 김○○ 학생은 "부모님 곁에서 기술을 익히고, 취업도 결정됐어요. 전남에서 내 길을 찾았어요"라고 이야기한다. 직업교육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교육복지 강화다. 고흥의 한 초등학교는 '통합지원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방과 후 간식, 정서지원, 독서활동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습결손을 막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섯째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보다. 장흥의 한 학교는 '전남형 디지털교실' 사업으로 스마트보드와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골 학교에서 처음 코딩을 접한 한 학생은 "로봇을 움직이니 내가 과학자가 된 것 같았다"고 말한다. 정보 격차를 뛰어넘어, 전남의 미래 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정된 지면상 몇가지 정책만 언급했지만 이 정책들은 전남 교육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성공의 밑거름이다. 이들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

앞으로의 전남 교육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시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사람답게 배우는 전남형 교육 모델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교육을 이끄는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교육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여러 교육정책에 있어 그 철학과 실천이, 아이들과 마을, 그리고 교실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기 고

# AI가 그린 지브리, 창작인가 침해인가

박 순 범
법무법인 YK 광주지사장

최근 SNS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변환해 게시해놓은 이미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익숙한 눈망울, 따뜻한 색감, 몽글몽글한 배경 속에서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손끝에서 탄생한 듯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한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이 신기한 기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다.

'지브리풍'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스타일 모방을 넘어서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그림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철학적 접근과 예술적 가치가 반영된 독창적인 창작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야자키 감독은 AI가 자동 생성한 캐릭터 동작을 본 후 "그것은 생명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창작의 영역에서 기계의 모방이 갖는 문제점, 즉 감성과 창작자의 진정성이 결여된 기계적 생산물을 경계하는 그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법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진다.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지브리의 고유한 분위기만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면 그 법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특정 장면이나 스타일을 그대로 모사하거나, 원작의 고유 요소들을 학습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가 과연 괜찮은 걸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SNS에 이미지를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를 굿즈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등 상업적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재미'와 침해'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좁다.

AI 시대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창작의 자유'를 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AI가 창작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경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社 說

# 전남 출신 다수 강제동원 日 밀리환초 진실도 미궁

올해 광복 80주년이지만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강제동원의 진상은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관련 자료 상당수가 은폐돼 있고 일본 정부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진실 조사 착수는 커녕 반성과 사과조차 없다.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우호적 관계를 예상하나 과거사에 대해선 분명하고 강경하게 메시지를 내야 하겠다.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에 대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광산의 반쪽 추모식도 성의 부족으로 파행됐다. 파면으로 물러난 윤석열 정권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던 만큼 새 정부에서는 달라야 한다. 폭발성 강한 민감한 사안이라도 피해가선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씨와 함께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새롭게 발굴한 밀리환초 피해자 명부를 공개했다. 일본군은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 군사시설 건설을 위해 조선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중노동을 시켰으며, 인육을 먹인 것에 대해 저항하자 집단학살을 자행했다. 명부에 따르면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총 640명이며, 이 중 99%에 해당하는 635명이 전남 출신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마셜제도 콰잘레인·루오트환초 등지에 강제로 차출됐던 피해자는 677명으로 다수가 전남, 경기, 경상도 일원이었고, 괌 지역에서 숨진 조선인 96명 가운데 75명도 전남 출신으로 나타났다. 야스토 씨는 "유족,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진상 규명, 유골 반환, 정신 계승이라는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내놓고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이행해야 한다.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외교 안보상의 동맹 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미래지향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역사적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으며,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대통령과 새 정부도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제징용, 위안부 등에 있어 일본 측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압박해야 한다. 아무리 전략적 이해가 커지는 동반자라고 해도 이상의 난제를 풀지 못하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과거사 해법이 대전제인 셈이다.

# 광주·전남 런치플레이션 심화, 소비심리 개선 시급

고물가 기조에서 '런치플레이션'이 특히 심화되고 있다.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인 외식 품목 대부분이 급등해 한끼마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에 식자재와 인건비가 지속해서 올랐고, 배달 수수료 및 임대료 상승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소비 심리가 위축돼 외식업 실질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 가계의 어려움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외식 주요 8개 메뉴(김밥·자장면·칼국수·냉면·삼겹살·삼계탕·비빔밥·김치찌개) 가격을 살펴본 결과, 5년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30% 가까이 뛰었다. 김밥이 2천400원에서 3천460원으로 44.2%에 달했고, 이어 비빔밥 32.9%(7천900원→1만500원), 냉면 32.1%(7천800원→1만300원), 자장면 27.8%(5천400원→6천9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평균 25% 상승했다. 김밥이 29.6%(2천100원→2천722원), 비빔밥 27.4%(7천111원→9천56원), 자장면 27.1%(5천333원→6천778원), 냉면 26.9%(7천444원→9천444원) 순이다.

외식비가 오르면 판매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서민 입장에선 예민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을 더 열지 못하게 만든다. 새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소비쿠폰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 수수료 경감을 위한 상한제 도입 방안부터 서둘러야 한다.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기후, 전쟁 등에 따른 공급 불안으로 원재료 상승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2차 추경 편성과 집행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단가가 치솟는 만큼 관세 조정 문제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야 말할 것도 없다.

지난 5년 소비자물가가 10%대로 상승하는 동안 외식물가는 25% 수준으로 1.5배 이상 높았다. 최근엔 부동산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올인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야 외식 수요가 늘어난다. 소비심리 개선이 시급하다.

## 그래픽 뉴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 핵보유국들이 앞다퉈 핵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북한도 보유 핵탄두 수를 90개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년도 연감(SIPRI YEARBOOK 2025)에서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핵탄두 재고를 1만2천241개로 추산했다. 이중 퇴역한 무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는 총 9천614개인데, 미사일이나 폭격기 등에 실린 채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3천912개, 보관고에 저장된 핵탄두가 5천702개로 추산됐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 수가 각각 5천177개, 5천459개로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600개), 프랑스(290개), 영국(225개), 인도(180개), 파키스탄(170개), 이스라엘(90개) 등 순서로 보유 분량이 많았다. SIPRI는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요소로서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고, 최대 40개를 더 생산할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채 핵분열 물질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편집국 | | | | | | |
|---|---|---|---|---|---|---|
| 편집부 650-2090 | 지역특집부 | 650-2060 | 광고문의 | 650-2099 | FAX | |
| 정치부 650-2030 | 사진부 | 650-2080 | 마케팅본부 | 650-2070 | 광고국 | 650-2016 |
| 경제부 650-2050 | 논설실 | 650-2006 | 경영지원국 | 650-2011 | 편집국 | 650-2017 |
| 사회부 650-2040 | TV본부 | 650-2009 | 사업본부 | 650-2007 | 업무국 | 650-2019 |
| 문체부 650-2065 | 서울지사(02) | 786-9488 | 업무국 | 650-2020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